

4주차

입시전쟁

이 경 속

- 한국의 입시문화를 알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교육적으로 더 타당한 대학입학제도를 구상할 수 있다.
- 가족배경을 떠나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입학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.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입시와 전쟁

- 학교는 전쟁
- 수험생의 삶

02. 해방, 그리고 교육열망과 성취

- 식민지 교육
- 교육열망과 성취

03. 무증파동과 가족주의

- 무증파동과 치맛바람
- 스카이 캐슬, 가족들의 전쟁

04. 입시와 문제풀이 전사

- 질문하지 않는 응답자들
- 문제풀이 전사들

05. 세계대학은 입시 변화 중

- 한국, 일본, 중국
- 영국, 프랑스, 미국

1차시

입시와 전쟁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입시와 관련한 한국의 풍경을 살펴본다.
- 한국의 수험생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생각한다.

학습내용

- 학교는 전장
- 수험생의 삶

학교는 전쟁

1강
시험국민의 탄생

2강
과거시험 1

3강
과거시험 2

4강
입시전쟁

5강
외국어시험

6강
시험은 정치다 1

7강
시험은 정치다 2

8강
시험과 능력주의

9강
시험과 세계화

10강
시험, 다시
반추하다

이번 강의의 목적

- 한국의 입시 문화 이해
 - 여러 국가와의 비교
- 교육적으로 더 타당한 대학 입학 제도 구상하기

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당일

- 합격을 위한 기도가 진행됨
- 시험장: 수험생 응원
- 늦지 않기 위해 경찰 오토바이를 타기도 함

시험 선물

- 포크: ‘잘 찍어라’는 의미
- 엿: ‘잘 붙어라’는 의미

선발 방식

수시전형

- 학교생활기록부(고교생활) 위주
 -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
 -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전형
- 논술 위주
- 실기/실적 위주

정시전형

-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
- 실기 위주

대학수학능력시험(수능)

- 동일 연령의 학생들이 보는 대규모 시험
 - 자신의 성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음
- 시험 성적에 따라 서열화 된 학교를 입학

인구감소로 줄어드는 수능 응시생 수

- 1980년대 후반~1990년대 초반: 약 100만 명
- 2022년: 약 50만 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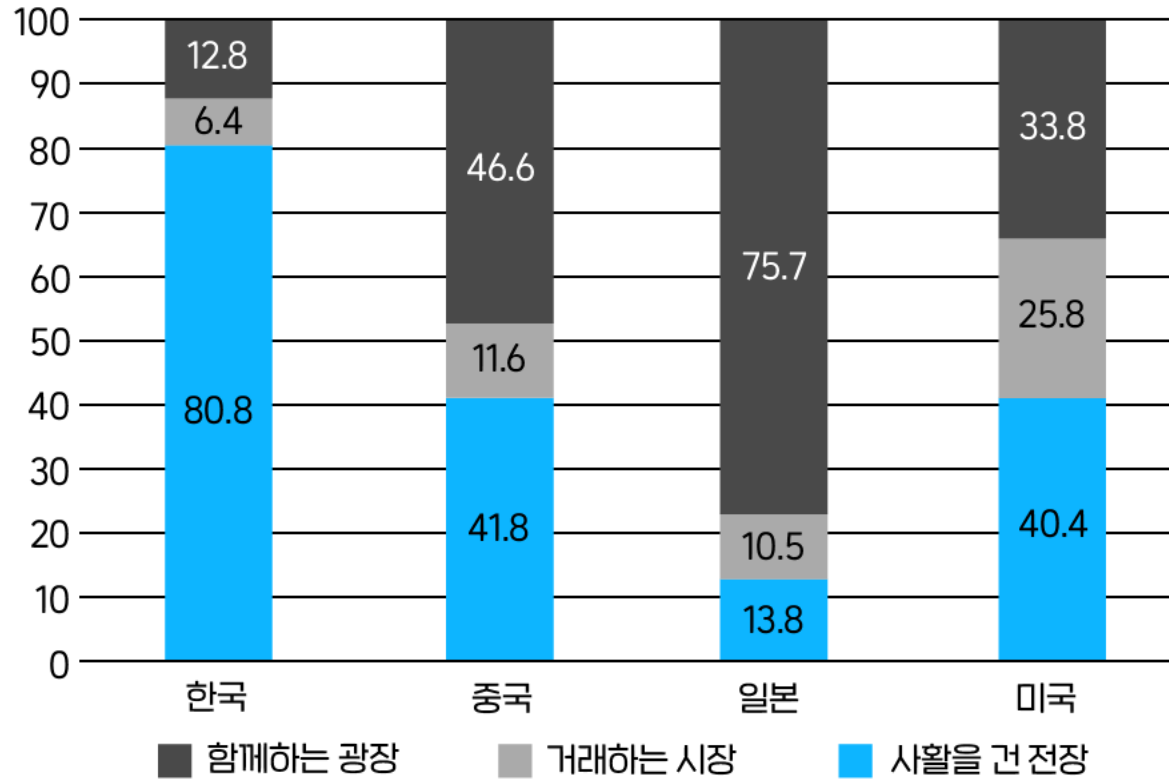
여러 번 시험을 보는 학생들

- 고등학교 재학생: 35만 명
- 졸업생: 14만 명 이상(약28%)

(재수생, 삼수생, N수생)

학교는 어떤 곳인가,
광장? 시장? 전장?

[그림 2] 자국의 고등학교 이미지에 대한 4개국 대학생의 인식



자료 : 김희삼, 「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」, 설문조사 자료, 한국개발연구원
· 광주과학기술원, 2017.

시험/입시 = 지옥 혹은 전쟁

1927.3.4 조선일보 “**展開된 試驗地獄**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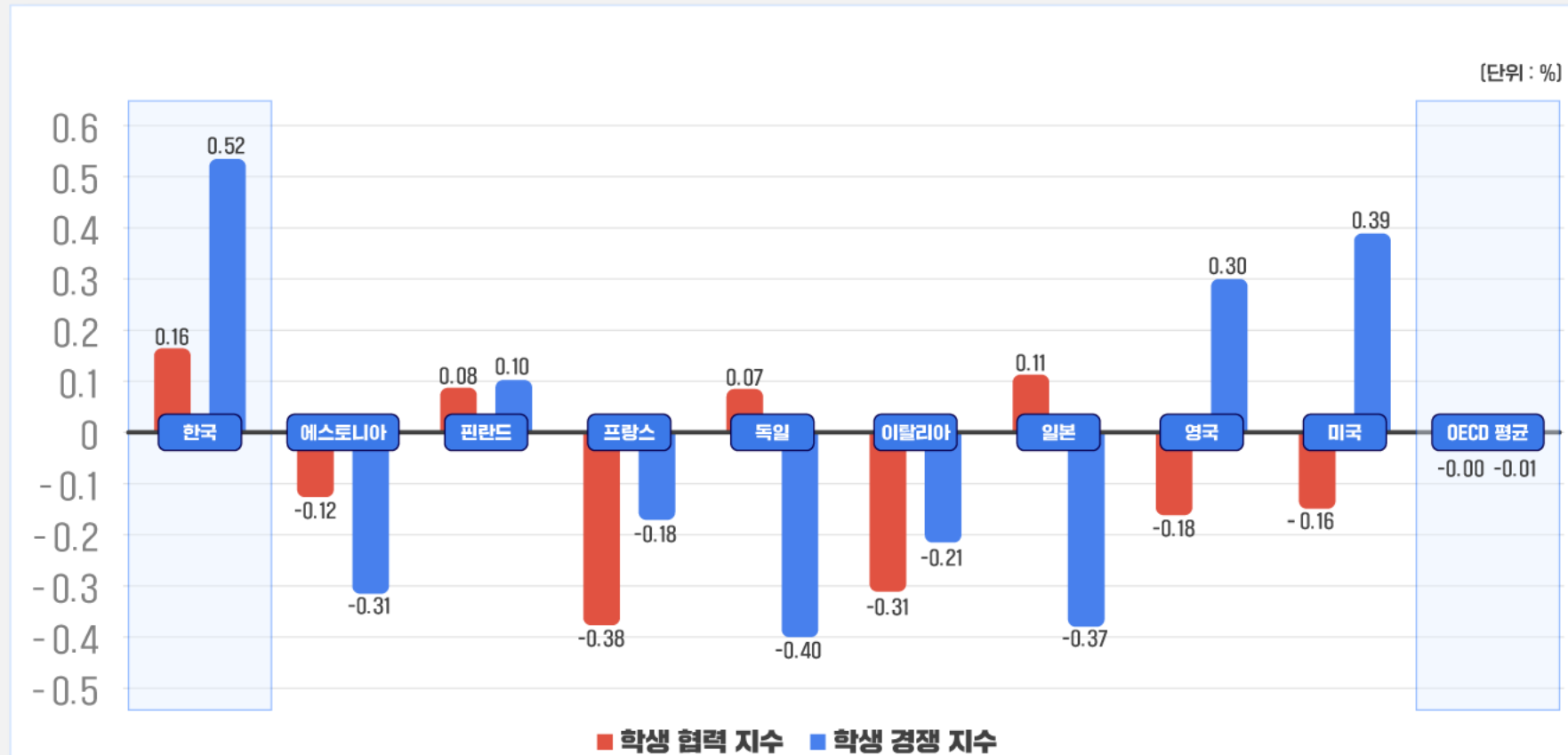
1937.1.24 조선일보 “**今春드러 최초의 入試地獄 開門**”

1965.11.27 조선일보 “**入試戰爭 개막**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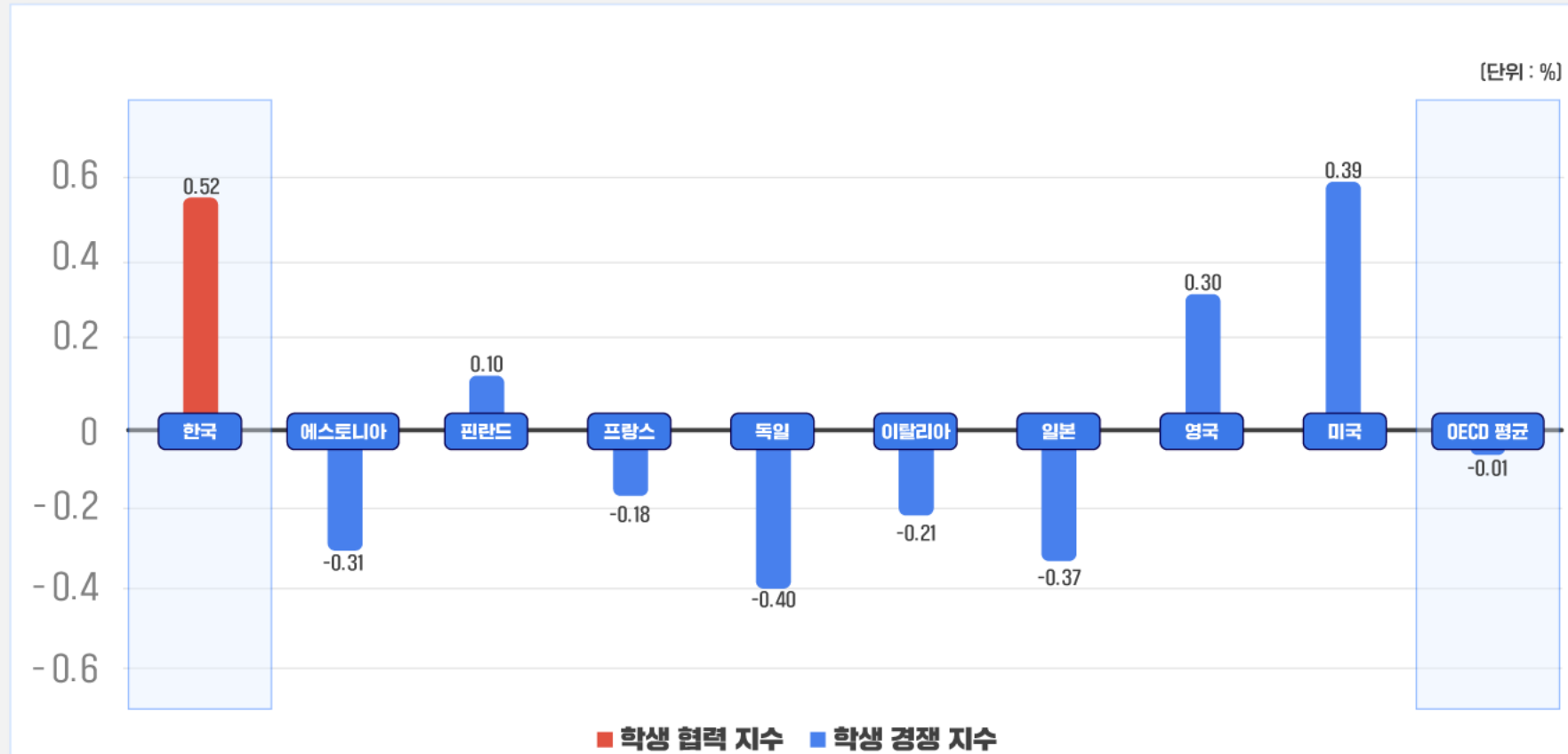
1973.11.20 경향신문 “**여전한 入試戰爭**”

1991.1.20 매일경제 … “**나라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과열된 입시전쟁을 치러야**”

학생 간의 협력과 경쟁(PISA 검사)



한국 학생들의 학생 간 경쟁지수



수험생의 삶

한국의 사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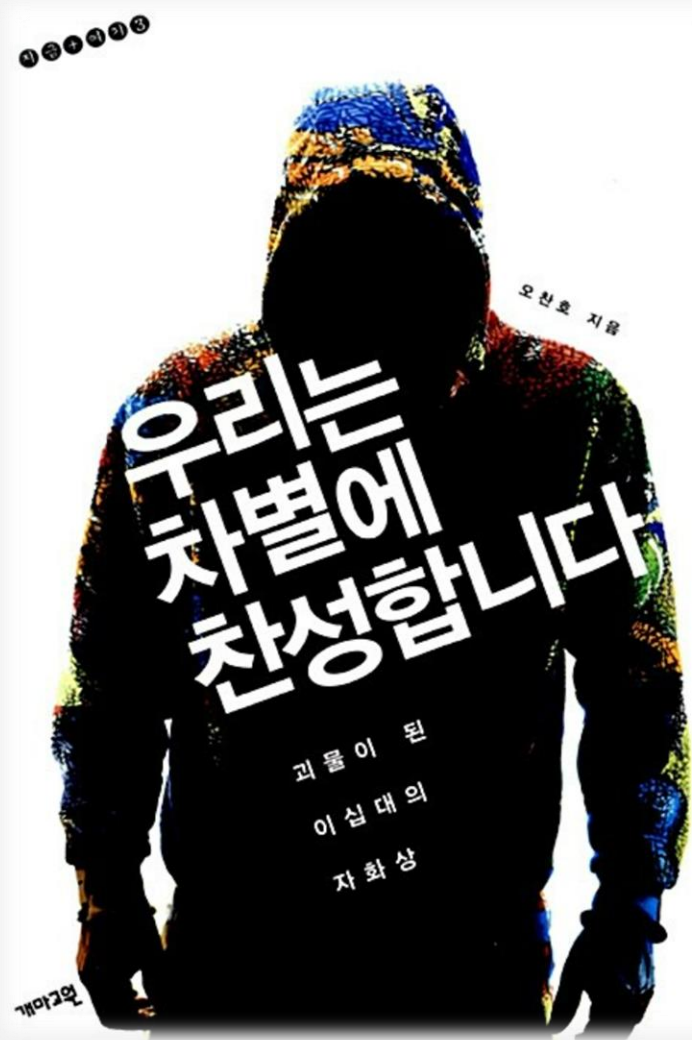
- 2020년, 한국인 학생 약 80% 사교육을 받고 있음
- 연간 사교육 비용: 약 26조원

잠을 줄이는 학생들

- 삼당사락(三當四落)
: 3시간 자면 붙고, 4시간 자면 떨어진다
- 사당오락(四當五落)
: 4시간 자면 붙고, 5시간 자면 떨어진다

대입제도

신분제도인가? 교육제도인가?



오찬호 저,
<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>

2010년, 김예슬의 대자보

**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,
아니 거부한다**

“... 나는 25년 동안 경주마처럼 길고 긴 트랙을 질주해왔다.
우수한 경주마로, 함께 트랙을 질주하는
무수한 친구들을 제치고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.
나를 앞질러 달려가는 친구들 때문에 불안해하면서.
그렇게 소위 '명문대 입학'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...
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. 아니, 거부한다.
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번 다 꽃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전에.
쓸모 있는 상품으로 '간택'되지 않고 쓸모 없는 인간의 길을 '선택'하기 위해...”

장강명의 소설 《표백》

한국 드라마

<스카이캐슬>

- 한국의 교육과 입시를 풍자한 드라마
- 이색적 풍경: 의과대학 합격생이 입학하지 않음

수험생이 아닌 학생들

- 시험이라는 제도가 담지 못하는 학생들
- 일반학생들의 꿈을 포기하도록 가르치는 학교
- 고등학교에서 교육적 활동이 충실할 기회를 상실당한 학생들

SOURCES

[출처01] 교육부, 한국교육개발원, <한국의 교육지표 2022>, 2022

<https://kess.kedi.re.kr/publ/view?survSeq=2022&publSeq=90&menuSeq=0&itemCode=02&language=#>

[출처02] 개마고원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정다영

영상
김록현